

학습 영역 문법(언어 활용)

학습 요소 과거, 현재, 미래의 시간 표현 방법

○ 시간을 표현하는 말

-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: 어제, 그저께, 그때, 작년, 며칠 전에, 옛날에, 지난 밤에
-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: 오늘, 지금, 요즈음, 올해
-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: 다음에, 내일, 모래, 내년에, 앞으로는, 먼 훗날

○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

- 시간을 나타내는 말 사용
- ‘-었-’, ‘-는-’, ‘-겠-(-을- , -것-)’ 과 같은 말을 어울리게 사용

5-1-2. 정보의 탐색

※ 다음 글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십시오. [1~2]

즉, 과거를 나타낼 때에는 서술어에 ‘-었-’을 쓰고, 현재를 나타낼 때에는 ‘-는-’을 씁니다. 또, 미래를 나타낼 때에는 ‘-겠-(-을-것-)’을 씁니다.

- (1) 나는 어제 책을 읽었다.
- (2) ()
- (3) 나는 내일 책을 읽을 것이다.

이때, ‘어제’, ‘지금’, ‘내일’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‘-었-’, ‘-는-’, ‘-겠-(-을-것-)’ 과 같은 말은 서로 어울리게 써야 합니다.

1 (1)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? (③)

- ①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이다.
- ② 지나간 일을 나타내는 문장이다.
- ③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다.
- ④ 서술어에 ‘-었-’ 과 같은 말이 쓰인 문장이다.
- ⑤ ‘어렸을 때’ 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어울리는 문장이다.

2 ‘지금’ 이라는 말을 넣어 ㉠에 들어갈 문장을 쓰시오.

예 나는 지금 책을 읽는다./ 지금 나는 책을 읽는다./
나는 책을 지금 읽는다. 등

◀도움말▶ 현재를 나타내는 ‘지금’을 쓸 때에는 서술어에 ‘-는-’을 쓴다.

3 다음 중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끼리 묶인 것은 어느 것입니까? (①)

- ① 지금, 오늘, 올해, 요즈음
- ② 어제, 그제, 작년, 어렸을 때
- ③ 내일, 내년, 다음에, 먼 훗날
- ④ 5학년 때, 지난 주말, 며칠 전
- ⑤ 올해, 그제, 요즈음, 어렸을 때

학습 요소 글의 흐름에 맞는 말

○ 글의 흐름에 맞는 말

글의 내용을 살펴 글의 흐름에 맞는 말을 써야 한다.

- 권유: ~하자. (꾸미자.)
- 명령: ~해라. ~해. (꾸며라.)
- 의문 (질문): ~까?, ~입니까? (꾸밀까?)
- 감탄: ~구나! (꾸미는구나!)

5-1-5. 사실과 발견

4 [자료]를 읽고, 밑줄 그은 부분을 내용에 맞게 고쳐 쓰시오.

자료

진아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.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이다. 진아는 항상 ㉠ 화려한 차림으로 다닌다. 친구들은 진아가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다녀도 좋아한다. 진아를 생각해 보니, 며칠 전 새 옷을 사달라고 떼를 쓴 내가 ㉡ 자랑스러웠다.

- ㉠ 화려한 → 평범한, 수수한, 소박한 등
 ㉡ 자랑스러웠다. → 부끄러웠다.

5 ㉠, 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.

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놀이터 만들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.

민정: 놀이터를 무엇으로 ()

재균: 상자로 만들면 좋겠어.

경민: 그림, 상자에 색종이를 붙여서 놀이터처럼 ()

- ㉠ 만들까? ㉡ 꾸미자.

※ 다음 글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십시오. [6~8]

[가] 어느 날 아침, 사라는 버스의 앞쪽 자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.

[나] 사라는 계속 나아갔습니다. ㉠앞쪽 끝까지 가서 운전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.

[다] (㉡) 어떤 흑인도 버스를 타지 않았습다.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이었습니다. 버스 회사는 당황하였습니다. 시장도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.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침내 법을 바꾸었습니다.

[라] 흑인이고 백인이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와 사라에게 악수를 청하였습니다. 신문 기자가 또다시 사진을 찍으려고 왔습니다. 사람들은 사라를 뒤따라 걸었습니다. 사라의 마음이 뿌듯하였습니다.

[마] 운전사가 성난 얼굴로 사라를 쏘아보았습니다.
“꼬마 아가씨, 뒤로 가서 앉아라. 너도 알다시피 늘 그래 왔잖니?”
사라는 그대로 앉은 채 마음속으로 말하였습니다.
‘뒷자리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!’

6 위 글을 읽고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.
(가) → (나) → (마) → (다)
→ (라)

7 사라가 ㉠처럼 행동한 까닭은 무엇입니까? (㉡)
① 법을 바꾸려고
② 운전사를 화나게 하려고
③ 버스 회사를 당황하게 하려고
④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
⑤ 버스 앞쪽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려고

8 ㉡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? (㉢)
① 내일 ② 앞으로는 ③ 그날
④ 요즈음 ⑤ 먼 훗날
◀도움말▶ () 안에 낱말을 넣어 문맥을 살펴본다.

9 다음 중 과거의 시간을 표현하는 말로만 묶인 것은 어느 것입니까? (㉣)
① 어제, 작년, 어렸을 때
② 오늘, 요즈음, 올해, 지금
③ 내년, 다음에, 어제, 먼 훗날
④ 내일, 작년, 어제, 지난 주말
⑤ 작년, 올해, 먼 훗날, 요즈음

※ 다음 글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십시오. [10~11]

[가] 김구 선생은 1876년, 황해도 해주군 텃골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다. 선생은 어렸을 때에 ‘창암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. 창암은 굉장한 말썽꾸러기였다. 어느 날, 지나가는 엇장수를 본 창암은 엇이 먹고 싶어졌다. 그래서 아버지의 손가락을 발로 밟아 구부려 엇과 바꾸어 먹었다가, 나중에 어머니께 ㉠고된 꾸중을 들었다.

[나] 선생은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본 사람들과 싸우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. 하지만, 김구 선생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. 김구 선생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. 나에게 김구 선생이 지니고 있었던 용기, 애국심, 끈기 같은 것들이 모자란다. 아니, 전혀 없는 것 같다.

이 책을 읽고 나서, 나는 김구 선생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㉡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. 나도 김구 선생처럼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㉢될 것이다.

10 ㉠과 ㉡을 글의 흐름에 맞게 바르게 고쳐 쓰시오.
㉠ 고된 → 예 호된, 엄한, 호되게, 엄하게 등
㉡ 사용해야겠다. → 예 본받아야겠다.

11 밑줄 그은 ㉣될 것이다와 같은 시간을 표현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? (㉤)
① 나는 커서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다.
② 저녁에 내리던 비가 아침에 그쳤다.
③ 작년에는 외삼촌께서 해외에 계셨어.
④ 그저께 떠난 배가 이제야 항구에 들어와.
⑤ 명희는 가끔씩 내게 맛있는 과자를 사 주었다.
◀도움말▶ ‘-것이다.’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다.

12 시간을 표현하는 낱말에 따라 서술어를 알맞게 사용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? (㉥)
① 나는 어제 노래를 부른다.
② 나는 지금 노래를 불렀다.
③ 나는 현재 노래를 부르겠다.
④ 나는 다음에 노래를 부른다.
⑤ 나는 내일 노래를 부를 것이다.
◀도움말▶ ① 나는 어제 노래를 불렀다. ② 나는 지금 노래를 부른다. ③ 나는 현재 노래를 부른다. ④ 나는 다음에 노래를 부르겠다.